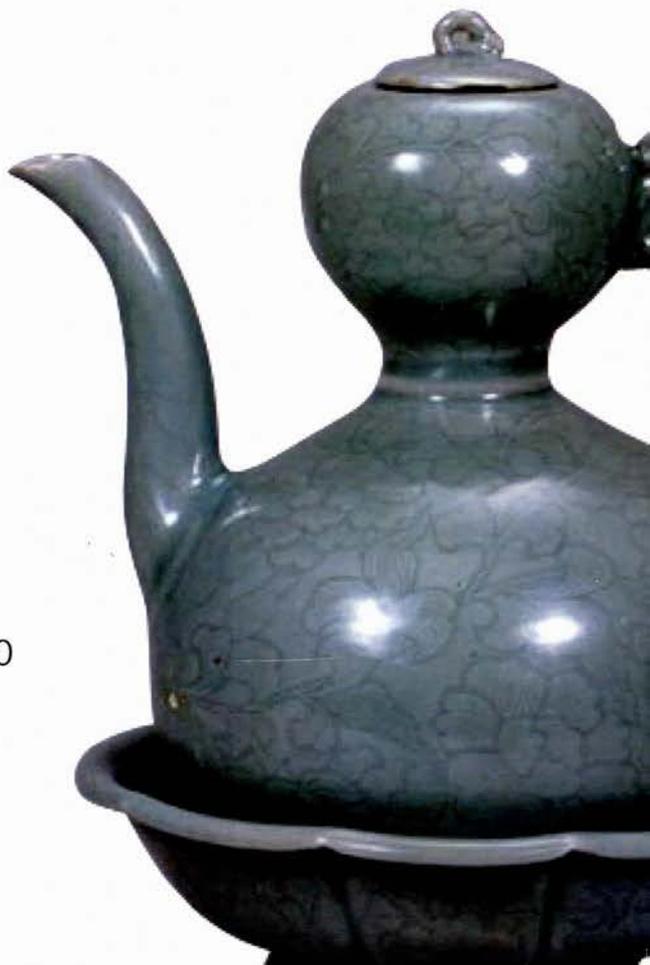


제13회 고려청자 학술 세미나

강진 청자의 미래 지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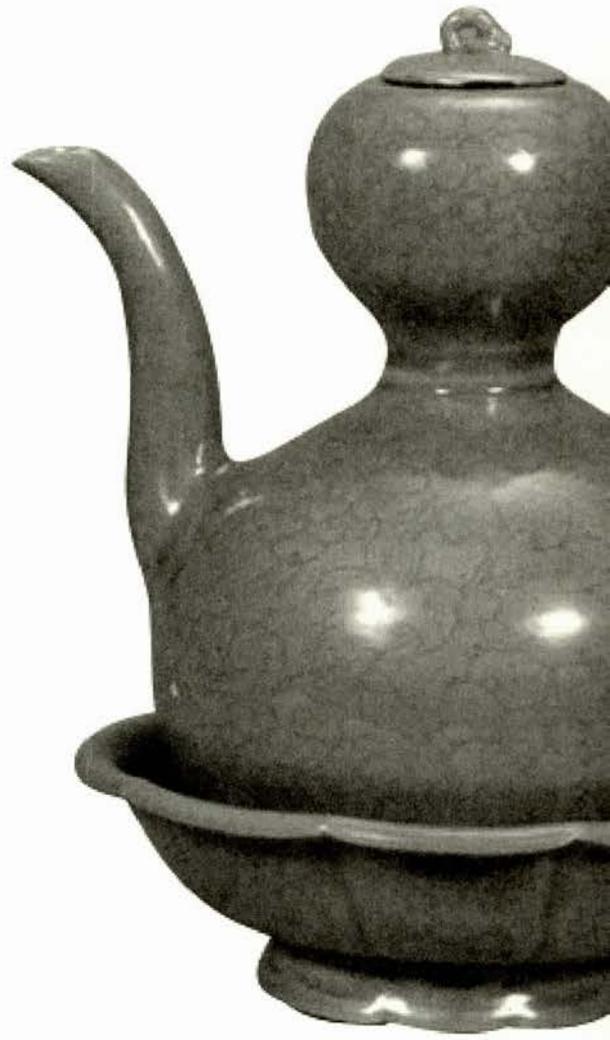
- 일시 : 2011년 8월 5일(금) 14:00
- 장소 :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 :  강진청자박물관



제13회 고려청자 학술 세미나

강진 청자의 미래 지향점

- 일시 : 2011년 8월 5일(금) 14:00
- 장소 :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 : 강진청자박물관
- 주관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후원 : 단국대학교 강진도예연구소



진행순서

▶ 접수와 등록 (13:30~14:00)

▶ 개회식 (14:00~14:10)

- 국민의례
- 개회사

▶ 주제발표 (14:10~16:20)

사회 : 송성근 (민족문화유산연구원 기획연구실장)

○ 14:10~14:50 청자의 미래 지향점

발표 : 천복희(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교수)

토론 : 최선주(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14:50~15:30 강진 청자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안

발표 : 정연택(명지전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토론 : 김경진(강진청자협동조합 이사장)

○ 15:30~15:40 휴식

○ 15:40~16:20 해저유적 출토 강진 청자의 현황과 성격

발표 :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토론 : 박예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 16:20~16:30 휴식

▶ 종합 토론 (16:30~17:00)

토론 좌장 : 박종훈(단국대학교 도예학과 교수)

목 차

청자의 미래 지향점..... 7

발표 : 천복희(서울여자대학교 공예학과 교수)

토론 : 최선주(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강진 청자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안..... 25

발표 : 정연택(명지전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토론 : 김경진(강진청자협동조합 이사장)

해저유적 출토 강진 청자의 현황과 성격..... 47

발표 :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토론 : 박예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청자의 미래지향점

천 복 희

도예가,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목 차

1. 서론
2. 고려청자의 우수성
3. 우리나라 청자의 현재
4. 전통문화의 계승방안
5. 현대청자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
6. 결론

1. 서론

‘1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예측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또한 사회 현상이 부단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인간의 삶이나 어떠한 사물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자의 미래 지향점’ 즉, 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도달해야 할 목표를 예측해야 하는 오늘 주제는 청자를 전문분야로 연구해 온 도예가가 아닌 나에게 어려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일각에서는 꾸준히 우리의 문화유산인 청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청자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제안들을 해 왔기 때문

에 청자 문외한으로서 이 주제에 대해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청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오늘날 청자의 모습 그대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주최 측의 견해에 용기를 얻어 감히 줄고를 마련했음을 밝힌다.

이 학술대회는 청자 발전을 위한 것이고 특히 강진 지역 청자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려청자의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성을 살려 청자에 대한 연구를 지역 특성 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체적 관점에서 청자를 살펴보고 강진청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 문화로서의 청자의 실체를 파악하고 현재 우리나라 청자의 전반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강진청자의 위치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청자는 청자유를 바른 도자기를 의미하며 도자 양식상, 특히 발색에 있어 특수성을 가진다. 전승자기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청자 역시 고려청자의 유약 발색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제작상 큰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특정한 원형적 색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은 하나의 제한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청자는 우리나라 현대도자의 바탕과 원천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분청자기나 백자에 비하여 아직 현대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려청자의 원형 복원과 재현품 제작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려청자의 원형재현 단계를 넘어 새로운 현대자기로 재창조하는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고려청자의 종류와 기법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그 원형의 우수성, 전통문화 계승의 진정한 의미, 우리시대 청자의 전반적 모습 등을 고찰해보고 더 나아가 전체적인 청자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함께 강진청자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다.

2. 고려청자의 우수성

한반도에서 자기(磁器) 제작은 9세기 말에서 10세기에 시작하였는데 신라 경질 토기의 기반 위에 중국 절강성 월주요로부터 유입된 청자 제작 기술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계기로 시작된 고려시대 청자의 생산은 우리나라 도예에 있어 '토기에서 자기로의 혁신적인 도약'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중국과 더불어 17세기 이전에 자기를 생산한 국가로서의 세계 도자사적 위상을 갖추 수 있었던 계기가 된다.

11세기 초까지에 걸친 초기의 고려청자는 중국의 영향이 짙으나, 11세기 중엽부터 눈에 띄게 발달하여 12세기부터 세련미를 보이며 기술적으로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 절정기에 도달한다. 고려청자가 가장 발달한 시기는 인종 때로 아름다운 청자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상감기법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청자를 기법상 간략하게 분류하자면 순청자(純靑磁), 음각청자(陰刻靑磁), 양각청자(陽刻靑磁), 상형청자(象形靑磁), 철화청자(鐵畵靑磁), 상감청자(象嵌靑磁), 퇴화청자(堆花靑磁), 동화청자(銅畵靑磁), 연리문청자(練理文靑磁) 등이 있다.

순청자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청자를 말하며 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멸할 때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져 청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단아한 형태와 비취색의 유약에 있다.

음각청자는 그릇 표면에 홈을 내어 무늬를 새기는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간단한 기법의 청자이며, 양각청자는 음각청자와 반대로 무늬의 주변을 파내어 그 무늬를 도드라지게 만든 청자다. 이 청자처럼 양각 기법을 사용하면 음각기법에 비해 화려함을 표현할 수 있다.

상형청자는 인물이나 각종 동·식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청자를 말하며 그 형태는 연꽃, 참외, 죽순, 복숭아, 사자, 오리, 원숭이, 상상속의 동물 등 매우 다양하다.

철화청자는 산화철 성분의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청자유를 입힌 것을 말하며 ‘철회청자’라고도 한다. 환원염 번조를 기본으로 하는 청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산화염으로 번조되어 황갈색을 띠는 예가 많다. 또 그릇 전면에 철화 안료를 바르고 유약을 입힌 것도 있는 데 이를 ‘철채청자’라고 한다.

상감청자는 그릇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파인 부분에 흰 흙을 넣어 백색 무늬로 붉은색 흙을 넣어 번조 후에 검은색 무늬로 나타나게 한 것이다.

동화청자는 구리가 주성분인 안료로 무늬를 그리고 청자유를 입혀 무늬가 적갈색으로 나타나며 이를 ‘진사청자’라고도 한다.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청자가 구워지는 높은 온도에서 구리 안료를 사용하여 붉은 색을 띠게 하는 기법은 고려의 동화청자가 처음이었으며, 15세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낸 고려 장인들이 얻은 또 하나의 개가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상감청자의 유약 표면에 다시 금으로 무늬를 장식한 금채청자, 음각이나 양각·상감기법의 무늬 주위에 붓을 이용하여 붉은 흙이나 흰 흙으로 두껍게 무늬를 그려 그릇의 표면보다 도드라지게 한 퇴화청자, 그리고 발색이 다른 점토를 섞어 반죽하여 성형한 후 청자유를 발라 대리석과 같은 자연스러운 무늬를 나타나게 한 연리무늬청자 등이 있으나 그 예가 드물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고려청자의 우수한 점은 청자유와 아름다운 발색과 세련된 형태 그리고 다양한 장식기법에 있다고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고려청자의 우수함은 청자유와 아름다운 색과 상감청자의 독창적인 기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상감청자 기법은 동일한 도자기에 발색이 다른 점토를 정교하게 상감하여 유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점토의 발색을 한 작업에 세련되게 조화시킨 기법이다. 상감된 흑백무늬는 청자의 바탕색과 아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상감된 문양의 섬세함과 전체적 구성은 완벽에 가깝다고 할만하다.

상감기법은 당시 나전칠기와 금속공예에 특히 청동 그릇에 흙을 파고 은실을 밀어 집어넣어 문양을 나타내는 청동 은입사(銀入絲)기법에서 영감을 얻어 도자기에 창의적으로 응용한 것으로 처음으로 청자를 만든 중국에도 없는 기법일 뿐만 아니라 세계 도예사를 통해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청자의 우수성은 중국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것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형태와 고려청자 특유의 맑은 비취(翡翠) 빛 유약의 발색 그리고 상감청자와 같은 장식기법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빛나는 창의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3. 우리나라 청자의 현재

현재 우리나라 도자관련 업체 수는 1,879개로 확인되었고 그 중 약 20%의 업체에서 전통 전승자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전승자기를 생산하는 업체 중 청자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다른 것과 함께 청자를 생산하는 업체 수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 없으나, 청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천의 경우만 해서 전국 요장 대비 3%정도가 청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국적으로도 청자 생산업체는 현저히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청자의 제작이 다른 자기에 비해 어렵고 특히 청자 고유의 발색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자가 도자제품 수요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식기개발에 적극적이지 못한 형편인데 청자의 색상이 백색 식기나 다른 색상의 식기에 비해 음식의 다양한 색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수요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청자의 품목으로는 관상용과 생활자기로 대별되는데 대부분 전통적 형태나 문양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편이다. 과거 고려청자가 만

들어진 시대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당시의 자연환경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것들은 당시 사회를 지배했던 종교와 사상 등과 더불어 그 시대 사람들의 감성과 조형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영향이 청자의 형태에 반영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전통적인 청자를 재현하는 경우는 고려청자의 원형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형적인 형태를 변형한 것 또는 새롭게 디자인된 감상용 도자기, 상형청자,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실용적 기물에서조차 전통적인 형태와 문양이 지배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려청자가 고려시대의 환경과 그 시대 사람들의 감성을 반영한 것과 같이 오늘의 청자는 현대인의 변화된 감성과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재창조되어야 한다.

문양은 그것을 향유하는 집단 사이에서 약속된 부호와 같은 성격을 지니며 한 시대의 사람들의 집단적인 가치와 감정의 상징이며 의식의 반영이다. 고려청자의 문양이 고려시대 선조들의 가치 감정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시대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면 현대인의 고려청자는 선조들이 사용했던 전통적 형상을 피상적으로 응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형상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형태나 문양의 변형, 은유를 통한 한국적 형상성만이 지금의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통문화의 계승방안

‘고려청자의 맑고 푸르른 비취색은 여전히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며, 대중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청자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말이다.

청자의 색을 고려인들은 ‘비색(翡色)’이라고 불렀지만 중국 사람들은

10세기에 완성한 청자를 ‘비색(秘色)’이라 불렀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워 궁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비밀스런 색깔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어쩌면 그와 같은 이야기나 청자색에 대한 지나치게 미화된 표현들을 접하면서 대중들은 아직도 청자를 미지의 영역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러한 청자에 대한 인식은 일반 대중들과 청자의 괴리감을 형성하고 일상생활에서 친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방해한다.

물론 고려청자의 완전한 재현은 특히 고려청자 특유의 발색을 재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비취색은 유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량의 ‘산화제일철’이 ‘산화제이철’로 환원하면서 발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화학변화 이외에도 유약 속에 남아있는 기포 크기나 밀도 유약의 두께 등 여러 조건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자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태토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철분 역시 유약의 발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요소 중 한 가지만 달라도 그 결과가 같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이 달라진 지금 1,000년 전 만들어진 청자유를 완전하게 재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도예가나 개별 사업체들이 청자유를 비롯한 재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나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료 전문가들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양질의 새로운 청자 디자인과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전통의 계승방안과 관련하여 충무공의 거북선을 한 가지 예로 들어 보도록 하겠다. 충무공의 거북선은 임진왜란 당시 우수한 성능을 가졌던 전투함이며 아직도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해군은 거북선만을 자랑하고 재현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며 현대전에 적합한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전투함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청자는 하나의 도예양식이고 기법이며 표현을 위한 하나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을 담을 때 그 언어적 기능을 할 수 있듯이 하나의 기법은 기법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를 갖지 못하고 기능하지 못한다.

시대가 지난 형식과 기술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응용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 도예 역시 토기에서 출발하여 고려시대의 청자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를 거쳐 현대도자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 문화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도예문화 역시 부단한 창조활동 속에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전통의 진정한 계승 발전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당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온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청자의 전통은 형상화된 물건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한편 선조들의 창조적 정신 그 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우리의 선조들이 살던 농경사회의 노래를 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청자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구로서 현대화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고 만드는 사람들 자신과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감성을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현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고려청자의 전통도 그렇게 21세기의 청자로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5. 현대청자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1) 청자 소지와 유약의 개발과 표준화

도자진흥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자업체들의 점토 조달 방법에 있어서 외부업체가 개발한 것을 구입하는 경우가 59% 정도로

가장 높고 외부조달과 자체개발을 병행하는 업체가 27%, 나머지 13% 정도가 순전히 자체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2% 이상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점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만 사유로는 품질의 균질성 부족, 저품질, 가소성과 성형성 부족, 성분과 유통 정보 없음 등으로 나타났다.

유약은 76% 이상이 자체개발하는 실정이고 만족도 부분에서는 65% 정도가 만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불만족자의 불만요인은 색상의 다양성 부족, 안정성 낮음, 유약원료의 균일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요장업체들의 원료에 대한 요구사항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점으로는 원료개발에 대한 지원, 원료의 질적 향상, 원료의 규격화, 저렴한 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원료에 대한 조사는 현재 우리나라 도자업체의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점이며 청자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자료는 아니지만 유약 배합과 소성 과정이 까다로운 청자의 경우, 백자나 다양한 다른 형태의 도자제품의 경우보다도 양질의 원료 연구와 개발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청자의 재료적 분석이나 조합은 재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며 도예가들은 분석된 결과를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역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있었기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점토, 유약, 성형기법, 소성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표준화(Standardization)가 이루어져야 청자를 현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다양화를 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예에서 점토와 유약은 패션디자인에서 옷을 만들기 위한 원사나 원단에 비유될 수 있다. 좋은 품질의 실이나 원단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옷으로 디자인되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없다.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재료가 그것을 이용하는 도예가, 디자이너들의 창의성과 결합될 때 또 다시 세계적인 명품도자가 탄생될 수 있을 것이다.

2) 현대적 디자인의 적극적 수용

본고에서는 디자인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청자에 있어서 형태, 표면 장식, 품목 등의 일반적 실태에서 느껴지는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의 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도자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비롯한 도자기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약 80%)이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외부의 전문 디자이너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생산에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업체가 13%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독창성을 추구하기 위함과 개발 기밀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업체이긴 하지만 외부 디자이너들이 도자관련 재료의 물성을 모르기 때문에 의뢰해도 개발할 수 없어 물성을 아는 사람이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태는 중·소 도자 제조업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불필요한 도전이라는 인식과 새로운 디자인과 다른 분야와의 협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놀라운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다. 문제를 잘 읽지 않고 옳은 답을 얻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문제와 욕구를 수집하고 철저히 분석하는 일이나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작과정을 이해하는 일들은 모두 디자이너의 문제 해결 행위에 포함된다. 전반적 업무나 공정이 분화되지 않은 소규모의 업체나 개인 도자공방의 경우 독자적으로 시장조사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하기는 어렵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여 스스로 고정관념에 빠질 수 있으며 고정관념은 창작의 가장 큰 적이다. 어떤 일이나 문제를 다른 각도의 견해를 수용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만 고정관념을 허물고 신선하고 새로운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여러 도자 회사의 경우는 자체 디자인개발부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품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찾기 위해 외부의 디자이너나 심지어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밀접히 관계하여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있다. 회사의 일부 공간에 외부의 작가들이 일정기간 회사의 재료와 설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작업을 하거나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지향적 사회에서 개성 존중사회로 변해가면서 의식주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이나 다수의 대중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라 가기보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식문화만 보더라도 중요시하던 아침식사 형태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간편한 형태로 바뀌었고 밥을 주로 먹던 우리의 전통적 식문화와 서구식 식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한식과 서구식 등 외국의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된 ‘퓨전요리’가 유행하는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도예가들이나 도자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해 할 수 있어야 하고 식기 디자인에서도 전통적 식생활에 필요한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식의 고정되고 획일화된 사고를 지양하여 변화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형태의 면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도자진흥재단의 도자센서스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매업체들이 취급하는 도자제품 중 79%가 생활자기이며 생활도자 제품의 형태는 백자(70%) 분청(13%) 청자(6%) 순으로 생활자기 분야의 청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소비자가 최근 구매한 생활자기는 접시류, 밥·국그릇류, 커피잔 세트로 접시류가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구입시 전통성(37%) 보다 현대성(63%)을 중요하게 여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비교적 경제적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생활자기 품목 중 접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전통적 형태보다 실용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간편하고 개성적인 상차림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변화가 식기 디자인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기의 형태와 문양에서도 전통적인 것들의 획일적 사용을 지양하고 재해석 또는 변형하여 은유적으로 활용하거나 전적으로 새로운 현대적 형태와 문양의 디자인 변화가 필요하다.

3) 청자의 영역확대와 새로운 아이템 개발

미래의 디자인은 ‘지금까지의 디자인 요소가 발전된 새로운 디자인(New Design)이 아닌 새로운 품목(New Item)의 발견’으로 개념이 바뀔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청자의 품목들이 과거의 고려청자에서 주종을 이루던 전통적 품목들이 현재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다 현대인의 생활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품목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식과 서양식이 혼합되어져 가는 최근의 독특한 식문화를 고려할 때 기능적이고 다양한 접시디자인 개발도 한 가지 방향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적 식탁에 사용되는 세트 개념의 식기도 필요하지만 요즈음 식생활 패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사용자들이 상황에 따라 개성적으로 구성하여 쓸 수 있는 단일 품목의 디자인도 매우 필요하다. 완전히 서양식에 초점을 맞춰 정찬용 서양식기의 개발과 서양식기의 대중을 이루는 플레이트를 식탁에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도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서양식 식문화의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토대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관상용 작품에 있어서도 도자기에 바탕을 둔 작품(Vessel-Oriented

Object)만이 아니라 순수조형작품(Ceramic Sculpture)을 위한 청자기법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적 시도를 통해 식기와 관상용 이외에도 패션 관련 장신구나 인테리어 관련 품목들의 개발을 통해 청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타 기법과의 융합과 새로운 기법의 과감한 시도

우리나라 고유의 상감청자 기법은 금속공예와 나전칠기 기법이 도자기법과 융합된 것이라는 사실에 집중해보자. 청자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서는 청자 이외의 다른 형식의 도예기법은 물론 다른 장르의 기법을 응용해 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청자기법과 다른 기법의 융합적 시도의 한 예로서 분청사기의 기법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준말이며 도예사적으로 청자와 그 출현시대와 형식이 다른 우리의 훌륭한 도예 유산이다. 분청사기는 상감청자가 쇠퇴하고 강진과 부안 등 주요 청자 산지들의 가마가 문을 닫은 후 전국 각지로 흩어진 도공들이 청자를 만들던 방식대로 도자기를 만들다가 고려청자의 고유한 색을 내지 못하고 실패한 결과 출현한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15세기부터 정착된 기법이지만 상감청자가 퇴화하면서 나타난 양식으로 고려의 상감청자 기법의 변종이며 고려청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5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상감분청사기와 인화분청사기는 상감청자의 기법과 거의 유사한 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분청기법은 상감청자에 사용된 청자유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 어두운 태토의 색과 밝은 화장토의 색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도 잘 조화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상감청자와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청사기의 다양한 분장기법과 청자유의 융합도 새로운 하

이브리드 창출을 위한 시도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현대 산업자기에 쓰이고 있는 다양한 장식기법들 중에도 전통적 청자기법과의 융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황색청자

학술적으로 정확한 명칭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서 청자의 종류에서 언급한 철화청자의 경우와 같이 청자유 특유의 환원소성 과정에서 충분한 환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성염 내지 산화염의 결과로 출현한 것을 일반적으로 ‘산화청자’ 혹은 ‘황색청자’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황색청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황색청자는 정상적인 청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결함을 가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균열유(龜裂釉)를 비롯한 새로운 유약들도 처음에는 의도와 달리 나타난 하나의 결함이고, 그 결점의 창의적인 우성화(優性化)를 통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청 출현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일반소비자들의 청자에 대한 선입견 내지 고정관념 중 한 가지는 청자의 고유한 색이 백자를 포함한 다른 식기의 색에 비하여 음식의 다양한 색에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소비자들의 개인별 취향이기도하지만 백색 무지의 경우와 같이 식기 자체의 형태나 색 자체가 지나치게 강하지 않을 때 음식의 고유색이 잘 드러난다.

황색청자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식기의 다양화를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청자의 산업화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활자기를 대량생산하는 유수의 기업체들이 있

으나 청자와 같은 전통자기를 대량생산하는 기업은 없는 상태다. 청자의 장식기법이 특히 상감청자와 같은 경우 제작 과정이 일품공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식기와 같이 수요가 많고 비교적 형태나 제작 공정이 단순한 품목들에 있어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에 의해 생산하는 소규모의 여러 업체들이 각기 차별화된 청자를 생산하는 방식도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방식은 소량의 관상용 청자를 생산하는데 적합하고 식기와 같은 대량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산업화의 핵심은 협업 내지는 분업에 있으며 원료에서 소성 및 완성까지의 전 공정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분화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계획 중인 '강진군의 도예촌 계획'에 청자의 산업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도예촌의 업체들과 지역작가 혹은 군소업체들 간의 분업을 통한 산업화를 시도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도예촌의 일부 공간에 규모 있는 산업체를 설립하거나 인근의 현대적 생산시설을 갖춘 관련 대기업과 연계한 산업화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점토와 유약을 비롯한 청자의 안정적 공급과 세부기술은 강진의 관련 연구기관이 제공하고 대량생산 설비와 제작시스템은 기업이 맡는 형태의 분업이 가능할 것이다.

7) 마케팅 전략구축과 전문 마케터 활용

강진은 이미 강진청자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지리적 약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마케팅 관련 제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진청자 역시 특성화와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양질의 청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강진청자의 국내외 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 마케터의 활용

과 다른 종의 사업과 연계된 이벤트 계획과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대규모 국제회의 기획업체, 건축 인테리어 관련 단체, 요식업 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척 상태를 모르는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될 수 있겠지만 도예마을의 외관이나 내용이 기존의 다른 지역과의 과감한 차별화가 강진청자의 홍보와 마케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예마을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자작가에 한정짓지 않고 다른 작업을 하는 도예가, 조각가, 디자이너 등의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 특히 유명작가들이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하여 대외적으로 보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함으로써 홍보 및 마케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청자의 고전적인 이미지에 새로운 현대적인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순히 기존의 민속촌 같은 분위기를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리불언 하자성혜(桃李不言 下自成蹊)’, 즉 ‘복숭아나무와 배나무가 말이 없어도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험한 산에 있든, 외진 곳에 있다한들 그 과일을 따기 위해 사람의 발길이 찾아져 결국 그 밑에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청자홍보와 마케팅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점은 좋은 열매, 즉 좋은 청자라고 생각한다. 청자를 위한 최고의 마케팅은 바로 최고의 청자를 만드는 것이다.

6. 결론

찬란한 도예문화 유산인 고려청자를 나무에 빚대본다면 실로 큰 나무다. 고려청자의 원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만도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청자라는 거목 밑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 시대의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것을 고려청자만큼 큰 나무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조들의 창의적 정신을 외형적으로만 닮는 것이 아니고 전통문화의 진정한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자의 발전 방향이나 특히 강진과 같은 특정지역의 청자를 특화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른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구축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다각적인 접근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자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청자 재료의 안정된 공급을 비롯하여 재료와 소성기술의 표준화, 원형기술의 다양한 시도, 현대적 디자인 방법론의 적극적 도입, 청자 이외의 다른 유형의 도예기법과 융합, 다양한 타 업종과의 연계, 청자 식기의 적극적 개발과 다양한 품목 개발, 다른 장르의 유명작가들의 참여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용, 청자의 산업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오늘의 주제가 광범위하고 여러 측면을 다루다보니 제시된 방향이나 방안이 다소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청자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전문용어 사용의 적절성이나 청자의 제작기법 등에 관련된 오류가 있었다면 이해를 구하며 줄고를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김옥철, 2006 『우리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안그리픽스.

허 균, 1995 『전통문양』 대원사.

국립중앙박물관, 2005 『국립중앙박물관』 솔 출판사.

국제디자인대학교, 2001 『디자인 강국의 꿈』

도자진흥재단, 2009 『2009 도자센서스』

강진 청자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제안

정 연 택

명지전문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강진 청자 디자인의 경영과 조형
 - 1) 디자인과 경영
 - 2) 경영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조건
 - 3) 조형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방법론 제안
3. 결론

1. 들어가는 글

강진은 역사적으로 고려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다. 과거의 경력 못지않게 강진청자 축제 또한 올 해로 3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오늘의 삶속에 투영시키고자 하는 강진군민의 열정을 의미하며, 필자 또한 이 같은 열정에 힘입어 지난 2010년도에 청자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료집 제작과 청자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여한 바 있다.

필자는 지난 세미나를 통해 강진의 청자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아

래와 같은 과제를 제안한 바 있었다.

- 조형 기술 중심의 디자인에서 기획 중심의 디자인으로의 전환
- 디자인 매니지먼트 강화
- 전통적인 관광문화상품에서 현대적인 생활실용품으로의 전환
-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
- 지역중심의 소비에서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홍보 및 유통계획 수립
- 소비의 다양화와 양극화에 대처하기 위한 생산 라인업 구축 등이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제안이 강진의 청자 발전을 위해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를 실천하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다.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화된 인력,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원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급한 평가 또한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과 운영 매뉴얼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서 강진 청자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다소 무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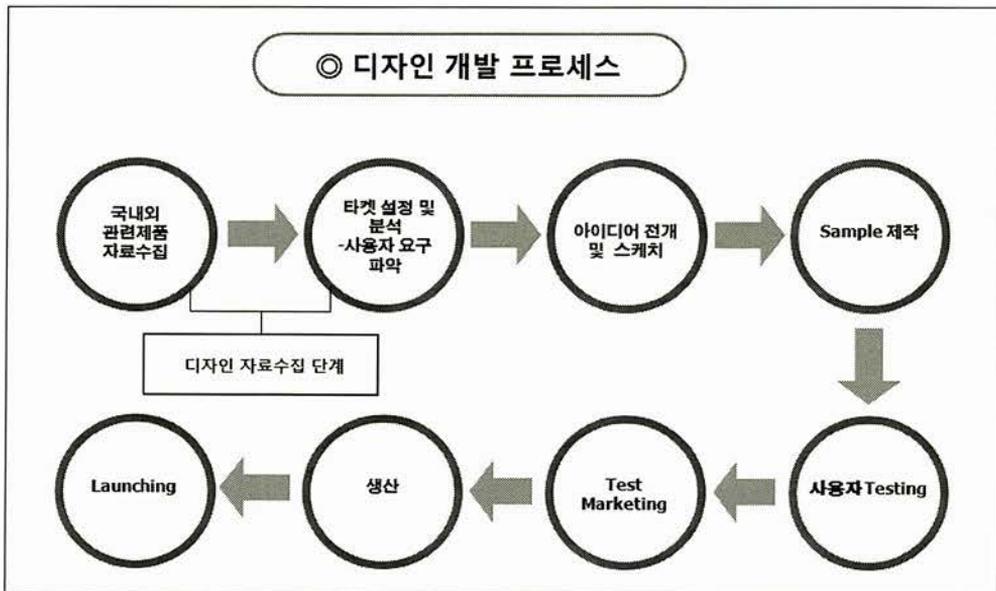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강진의 청자 발전을 위한 사업주제는 ‘청자의 디자인 개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디자인 개발 또한 단순히 형태와 장식의 변화를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디자인의 개발이 단지 개인적인 작가의 능력을 통해 흔히 말하는 작품성 있는 청자 제작에 국한된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디자인 행위는 단지 기물의 조형적 변화를 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디자인 행위란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무늬 즉 새로운 삶의 형식을 입혀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의 삶(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새로운 디자인(형식)의 발견은 불가능하거나 왜곡된 결과를 만들기 일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발견된다.

삶의 내용이 배제된 형식미의 추구는 공허한 예술적 자기만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보여주기 위한 장식물에 그치게 된다. 지난 날 1970년 이후 청자의 전성기가 오늘날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원인은 청자가 단지 전승적 차원에서 관상용 도자기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당대의 생활문화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다.

전통공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문화능력, 문화체질, 사유능력을 의미한다.” 고 말 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의를 통해 우리는 공예가 일상생활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과 이해 없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용에 대한 검증이 없이 형식을 만든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디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굿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찰과 이를 도자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

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치우치지 않고 가급적 소비문화의 요구를 살피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위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디자인개발에 따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소규모의 생산과정에서 이 같은 과정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절차라도 응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장조사에 있어서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의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기획의 목적에 따라 전략상품, 주력상품, 보완상품 등으로 나뉘지며, 첫 단계의 기획 파악에 있어서도 신 시장 개척 상품, Me-too 상품, 경쟁 우위 상품, Brand 확장 상품 등으로 구분된다.

| 고객조사 4단계 | | |
|-------------------|-----------|--|
| 상품개발 | 고객 조사 | 내역 |
| 1단계 - 기회파악 | 시장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시장현황과 경쟁 동향 등을 파악 • 고객 관점에서 Needs 및 불만 요인 집중 조사 • 고객 입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 |
| 2단계 - 상품 개념 결정 | 개념 수용도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품 개념에 대한 고객 수용도 조사 • 기능/품질, 디자인, 가격 등 개념에 대한 반응 •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등 |
| 3단계 - 상품화 | 시제품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시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 조사 • 기능/품질, 디자인, 가격 등 기타 요인에 대한 반응 • 설문조사, HUT(Home Usage Test) 등 |
| 4단계 - 상품 출시 | 시험 시장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장에서의 고객 반응 조사 • 구매 후 반응 집중 조사 : 만족도, 재 구매 의향 등 • 방문조사, 전화 면접 조사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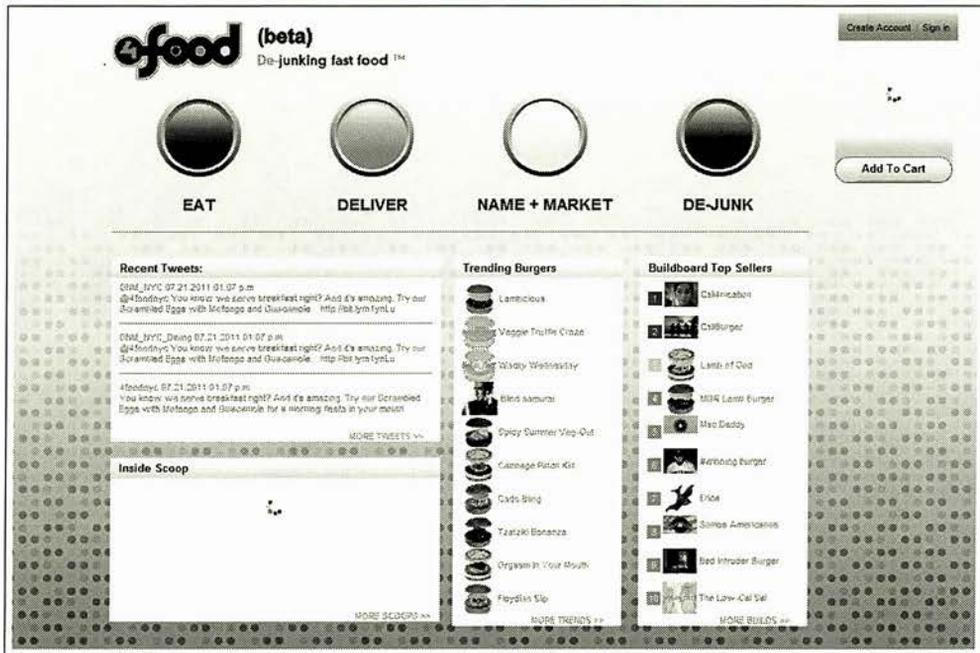
| 상품기획의 목적에 따른 상품의 종류 | 기획 파악에 따른 상품의 종류 |
|---------------------|------------------|
| 전략상품 | 신 시장 개척 상품 |
| 주력상품 | Me-too 상품 |
| 보완상품 | 경쟁 우위 상품 |
| | Brand 확장 상품 |

과거 20세기를 걸쳐 모든 분야에 분업화와 이로 인한 전문성이 강조되었던 시절에는 제품의 외형적 특징과 기능성을 강조하여 판매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소비문화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또는 기업의 이미지와 문화를 판다.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파워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상은 이에 다름이 아니다. 미국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가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사실 커피 자체의 맛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공간에 문화를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스타벅스를 찾는 커피 소비자는 사실 커피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스타벅스의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소비문화의 형태도 과거 산업시대엔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어 생산자는 열심히 만들고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만 하였지만, 오늘날 소비문화는 이 같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마케팅(Prosumer Marketing)과 더불어 소비자가 영업사원을 대신하게 하는 마케팅도 운영되고 있다. 뉴욕 맨하탄 한 가운데에 있는 햄버거 2.0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일단 건강한 햄버거 가게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조합의 햄버거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가능한 조합의 수가 1억 4천만 가지에 이르는데, 재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어를 중심으로 독특한 샐러드를 결합한 연어버거 등도 주문이 가능하다. 주문을 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운터에 줄을 서서 종업

원을 상대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주문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다 특이한 점은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다. 4food.com은 전통적인 마케팅에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바이럴 파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직접 조합한 햄버거 메뉴를 저장하고, 자신만의 근사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메뉴를 좋아한다는 것을 간단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심지어는 유튜브 비디오 광고에까지 매우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쉽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세심한 신경을 썼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저장한 메뉴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가 될 경우에는 25센트를 적립시켜 주기 때문에 자신의 메뉴를 전파시키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요식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소비자의 경계가 뚜렷하다면, 4food에서는 소비자가 생산과정에 개입도 하고, 이

들이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프로슈밍(prosuming)과 바이럴(viral)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는 과거 20세기의 분업화되어 전문성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다시금 통합적인 기능을 보충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의 외형적인 상태만 좋으면 잘 팔 수 있었던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디자인이 조형 측면만의 소극적 제안이 아니라 가격, 판매방법, 루트, 기능 측면 등을 압축시켜 제품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제안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경영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조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장조사

소비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각종 디자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시장조사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즉 양적, 질적 조사의 부분으로 나뉜다. 정량조사에는 시장조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질문지를 통한 면접이 있으며,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가 있다. 정성조사에는 그룹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한 조사가 있으며, 매장에서 고객의 행동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조사와 카메라를 이용한 관찰 등의 조사 방법이 있다.

특히 일정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디자인에 있어 시장조사는 필수적이다. 자신의 제품디자인이 주관적 관점이나 개인의 취향에 흐를 경우 제품은 대중의 흐름과 동떨어져 원활한 판매에 이르지 못하

게 된다. 때문에 판매를 사전에 고려한 제품디자인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술을 갖고 신제품 아이템을 고려한 후 이에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다음 판매처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 생산자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비경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조사의 전문성 부족과 자본과 인력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최소한 소매점 또는 대형마트의 소비 형태를 직접 관찰하고 이를 통한 제품기획을 면밀하게 주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에 매장을 한 두 곳 들러 꼼꼼히 관찰하거나 때때로 고객에게 직접 질문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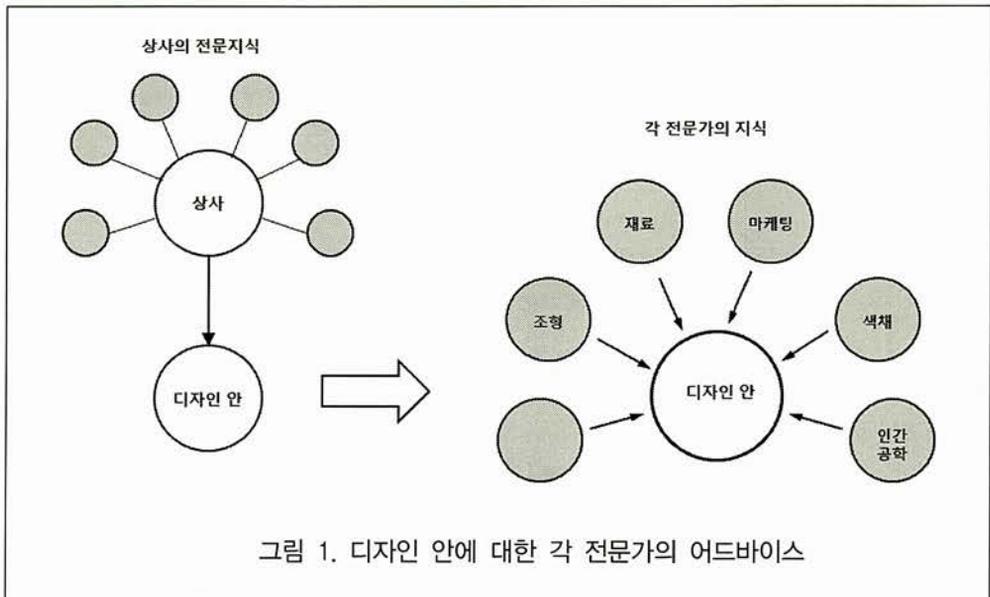
(2) 디자인 개발 아이템의 명확한 분류와 인지 요구

개발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제품의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을 용이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서 기회 파악에 따른 상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상품개발은 크게 니즈(Needs)형과 시즈(Seeds)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니즈형은 이미 시장의 수요가 있는 제품을 한층 더 개발한 품목으로서 구체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시즈형은 아직 시장의 요구가 뚜렷하지 않으나, 시대적 흐름상 요구가 예측되는 품목으로서 사회적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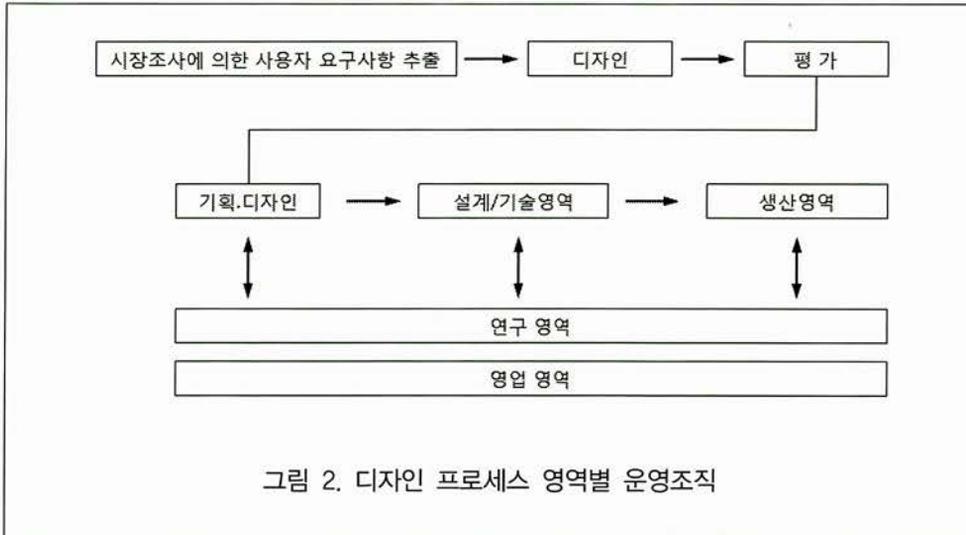
(3) 디자인 프로세스의 재고

디자인 행위가 단순히 제품의 외형적 조건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형행위가 아니라는 점은 앞서 설명 드린 바 있다. 오늘날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해 과거 조형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서 ‘생각하는 작업’교육에 가치를 두고 자신들이 디자인한 제품이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팔리는지, 마케팅 등의 사업 감각이나 매니지먼트를 학습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이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기 보단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하나의 디자인 안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 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1).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 업무별 영역은 아래 그림과 같이 조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 같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조직을 갖추기 어려운 사업체일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통해 운영 가능하며, 보다 더 바람직하다(그림 2).



(4) 제품의 합리적 평가기준 재고

우측의 평가 기준은 제품의 수요자적 입장에서 검토 가능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5) 프로모션 전략의 강화 재고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선 다양한 광고 및 홍보 기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광고란 TV나 라디오, 잡지, 신문, 인터넷 등 한정된 공간을 사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다. 홍보는 매체에서 취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홍보는 기사를 뜻한다. 따라서 홍보는 매체와 관련된 편집장이나 전문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먼저 이들에게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사화가 안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광고는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 주요기준 | 평가내용 |
|--|--|
| 상품명 설정 (suitability question / occasion) | 주제, 문제 이해의 명확성, 작품의 concept에 대한 가시화 |
| 상품성 (commercial viability / marketability) | 경제성, 시장성 |
| 독창성(distinction) | 창작의 특이성, 고유의 이미지, 실험적 아이디어 반영 |
| 소구력(impact) | 미감의 시각화, 심미성 |
| 작품성(design) | 새로운 작품성에 대한 미적 인상 |
| 브랜드 이미지(brand power) |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 |
| 시각적 균형(balance-visual) | 시각적 특성의 상호 관계, 연계성, 조형요소의 시각적 내용 및 기술 |
| 실제적 균형(balance-actual) | 공간 한정성, 감각적 인상, 안정감 |
| 고급감(novelty / luxury) | 품격 표현 |
| 색채(colour) | 색채 계획, 균형, 조절, 조화 |
| 문양, 패턴(pattern) | 제품의 특성과 조형적인 균형감 표현 |
| 재료가공, 재료개발 | 원천기술의 차별성 |
| 장인성(workmanship) | 전문적 기예와 기술 표현 |
| 기술성(technique of assembly) | 기술 구성의 합리성, 조립 및 제작성 |
| 구조감(stability of construction) | 구조적 구성요인과 제안, 안정감, 견고성 |
| 마감성(clean finish) | 정성도 표현 |
| 중량감(weight) | 작품의 실제적 무게감 |
| 취급성(ease of handling) | 운송 및 사용상의 안정성 여부 |

든다. 따라서 프로모션 전략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되 사업체의 여건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위해선 단순히 제품만을 보여주기 보단 그것과 관련된 확장상품 즉, 보증 및 신용, 배송 등과 같은 부대 서비스 상품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풀무원 식품의 경우 고객이 구입하는 것은 단순히 식재료만이 아니라 식재료와 관련한 신뢰와 안전을 동시에 구입하는 것이다. 일종의 보증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다. 축제 기간에 강진의 청자를 구입하는 고객의 경우도 단순히 도자기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한 도자기의 역사를 지닌 강진의 문화를 구입하는 것이다. 강진의 역사적 배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것은 곧 도자기 보다 강진의 문화와 역사를 통한 프로모션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요즘 모바일 기기를 판매하는 매장의 경우, 진열대에 상품이 전시되어 있기 보단 상품의 성능과 관련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현대의 소비문화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소비한다는 점을 뜻한다.

효과적인 프로모션을 위해 『강진군 우수 도자문화상품』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영세한 요장들의 경우 위와 같은 프로모션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란 어려우며, 따라서 강진군의 주관 하에 공동브랜드 개발과 이를 통한 단위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국내외 마케팅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조형적 차원에서의 디자인 방법론 제안

청자 디자인 개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금의 생활문화권으로 적극 유입하는데 있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자기의 활용범위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중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 식생활 문화에 청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일이다. 그러나 청자의 활용도는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자나 옹기에 비해 낮은 게 현실이다.

| 구분 | 백자 | 청자 | 분청 | 옹기 | 초경질도자기 | 기타 |
|-----|------|-----|------|------|--------|-----|
| 한식당 | 33.3 | 2.0 | 18.4 | 34.9 | 9.4 | 2.0 |
| 일식당 | 32.0 | 8.7 | 26.2 | 20.4 | 9.7 | 2.9 |

(2007 도자소비 수요창출 기본전략 및 프로그램 연구 / 세계도자기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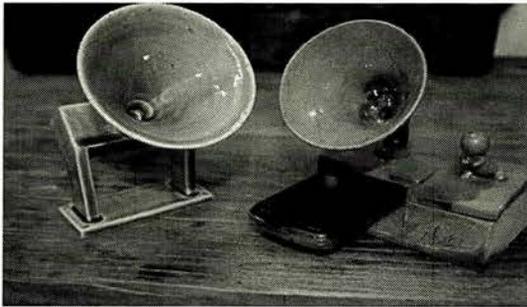


그림 3. 도자기 스피커 / 엄상흠 작

물론 청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식기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 수많은 도구들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발전, 또는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진화의 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도구들의 진화과정에 도자기 재료와 기술을 접목하거나 혹은 새롭게 발견된 도구를 도자기로 제품화시키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그림 3).

하지만 도자기 시장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식기 부문을 제외하고 도자기 산업의 발전을 말할 수 없다. 식기는 도자기 시장의 지속성과

다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진 청자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매출증대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청자 식기 디자인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시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함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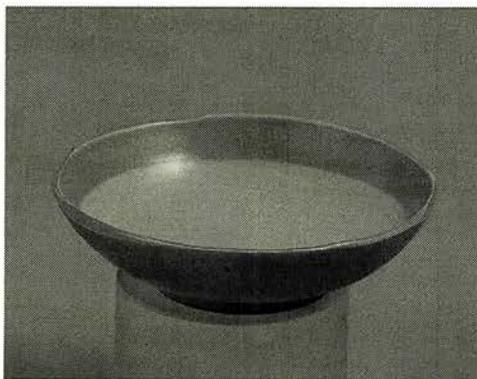
현대의 식생활 문화와 관련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먼저 청자의 고유한 색상을 식생활 문화 속에서 활용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이다. 청자의 고유한 색상은 그 자체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움을 지니고 있어 훌륭한 문화유산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때론 약점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식탁문화에서 백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음식을 그릇에서 연출할 때 용이하기 때문이다. 음식의 고유한 색상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그릇이 백자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백자로만 이뤄진 식탁이 보다 다양한 음식문화의 연출을 제한하여 고루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까이 일본의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지니고 있는 그릇 문화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리 식기문화의 단조로움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청자를 활용한 식기 디자인 개발은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선 청자의 전통적 요소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과거의 전통에만 집착한다면 결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디자인 개발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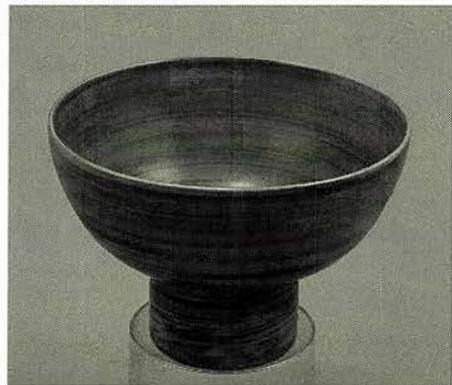
아래 작품은 2005년 도예가 이윤신과 경기도 이천 해강요와의 협업으로 이뤄진 청자 디자인 개발의 예를 보여 준다. 작가 이윤신의 청자 디자인에서 발견되는 개발요소 중에 색상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작품 1>은 그릇 안쪽 부분의 바닥면에 백색분장을 통해 그릇의 실용성을 높이려했다. <작품 2>에서는 전통 청자의 흑상감 부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기물의 주조색을 기존의 비취색 위주가 아닌 흑색을 많이 넣어 처리하였다. <작품 3>과 <작품 4>의 경우엔 청자 소지의 일부를 무유로 처리하여 소지 자체의 색상을 노출시키는 가운데 청자의 주조색과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형실험은 청자 색상의 구성요소를 (1)청자태토의 고유색, (2)청자유약의 색, (3)흑상감의 색, (4)백상감의 색으로 구분하고 각 색상의 비중에 변화를 줌으로서 시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 백상감과 흑상감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시도는 식재료의 다양한 색상에 대한 포용력을 갖게 해 줌으로서 식기로서의 실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작품 5>의 경우, 청자의 고유색상과 다른 색상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청자의 색다른 맛을 표현하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로 색상을 표현하면 식기로서 실용성을 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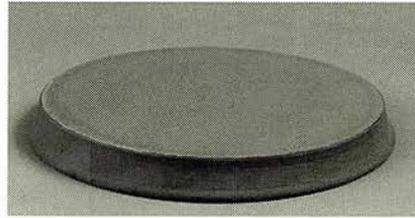
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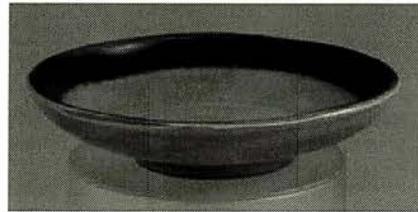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청자는 유약의 투명도가 높고 맑으며 얇게 시유되어 태토색이 유약 아래에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청자는 이에 비해 불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청자가 불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유약 내에 티타늄(TiO₂) 성분이 고려청자에 비해 많고 또한 두껍게 시유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청자는 태토의 색상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탓에 태토가 백색인 경우도 있었다.

청자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위에 열거한 우리나라와 중국 청자의 특징을 나열하고 이를 새롭게 조합하는 방식을 취한다면 색다른 청자의 유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반적인 변화의 구성요소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 |
|---|----------------------------------|
| 1 | 투명유와 불투명의 사용여부에 따른 변화 |
| 2 | 태토의 종류에 따른 성질의 변화 |
| 3 | 시유 두께에 따른 변화 |
| 4 | 청자유의 색상에 따른 변화 / 갈색, 올리브색, 비취색 등 |
| 5 | 상감색상의 주조색 사용여부에 따른 변화 |
| 6 | 청자유 이외의 유약을 조합 활용하는데 따른 변화 |

위에 열거한 구성요소를 아래 그림과 같이 조합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청자를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4). 특히 여러 가지의 태토를 한 기물 안에 조합할 수만 있다면 색상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태토의 수축률 차이로 인한 균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석고를 이용한 사각접시의 경우, 2가지 태토의 조합 비율을 여러 단계별로 만들어 붙여나간다면 수축률 차이에 의한 변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 이 같은 작업은 청자의 고유색상을 유지하면서 실용성을 높이는데 유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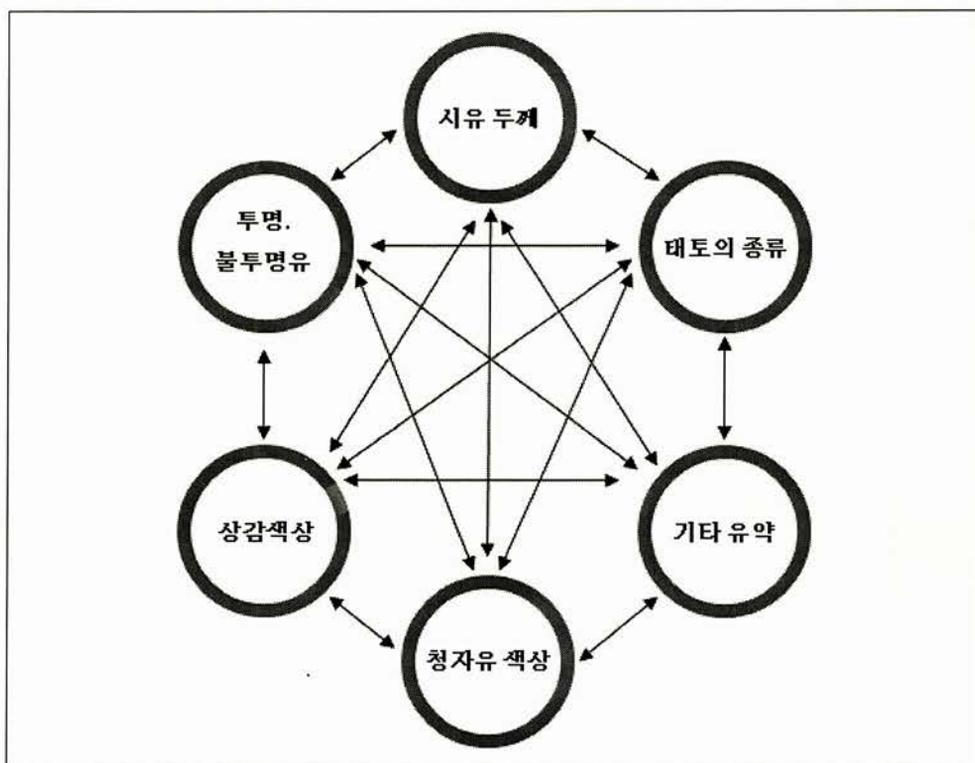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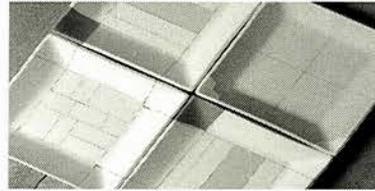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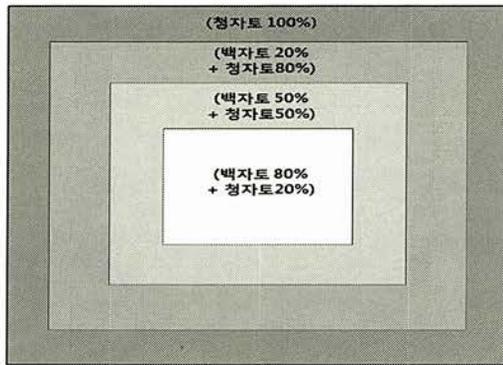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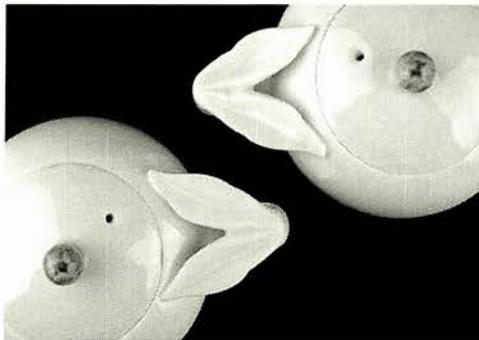


(색소지로 만든 도판을 조각조각 붙여 나간 백자조작보접시 유세림 작)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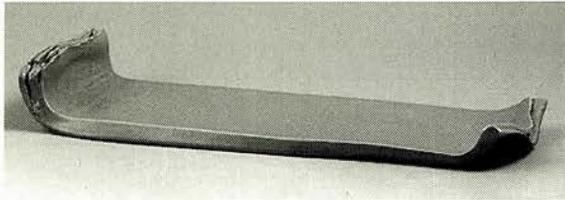
두 번째는 형태의 다양화를 위한 조형적 관점을 개발해야 한다. 청자의 전통적 형태에 타성적으로 젖어있으면 결코 새로운 변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디자인이란 과거에 없던 형태를 만들어 내기보다 기존의 형태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는 일에 가깝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변용이 요구된다.

이 같은 변용의 동기는 첫째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비롯된다. 사물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게 된다. 아래 그림의 다기 주전자는 특히 손잡이의 형태를 보다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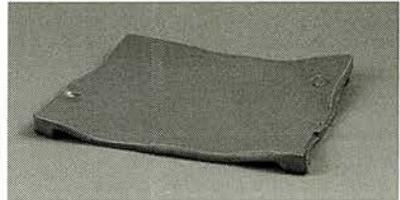


두 번째는 재료의 물성을 이용한 조형적 시도와 이를 통한 형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아래 청자(작품 6·7 / 이윤신 작)는 청자의 재료적 성질을 이용한 작품이다. 철분이 함유된 태토의 고유색상과 태토의 가소성을 최대한 이용해 물리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자연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 6



작품 7

세 번째는 도자기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입언저리 부분의 두께와 형태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두께란 한 면과 그에 평행한 맞은 면 사이의 너비를 가리키며, 도자기는 다양한 형태의 주둥이와 두께를 지닌다(그림 6). 따라서 도자기의 조형적 특징을 가장 크게 결정 지우는 곳은 도자기의 입 언저리(주둥이) 부분이다(그림 7). 동일한 몸체의 형태를 바탕으로 주둥이의 변화만 달리해도 그릇의 미적 특징은 다양하게 변화된다. 조선백자의 주병의 경우, 비슷한 몸체의 형태 위에 주둥이 모양이 다양하게 처리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릇의 다양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8·9). 기본적인 형태 안에서 주둥이의 두께와 형태의 변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 크게 형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결국 디자인은 ‘무(無)’에서 ‘유(有)’의 창출이 아니라 ‘유’에서 새로운 ‘유’로의 변형을 의미한다.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변주를 이루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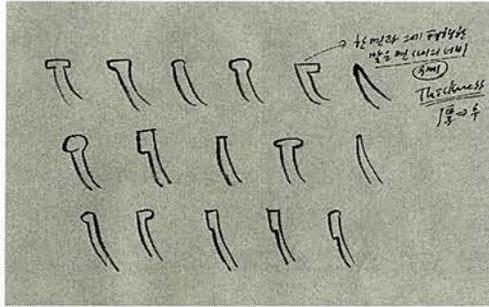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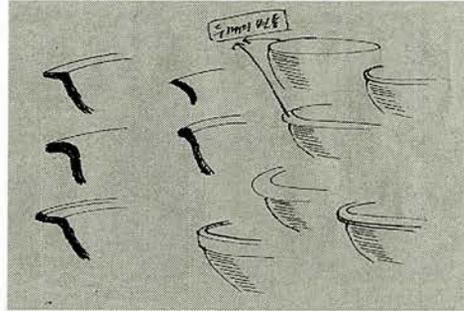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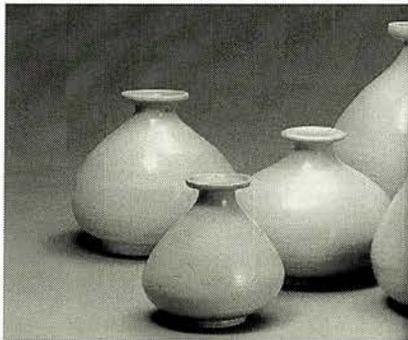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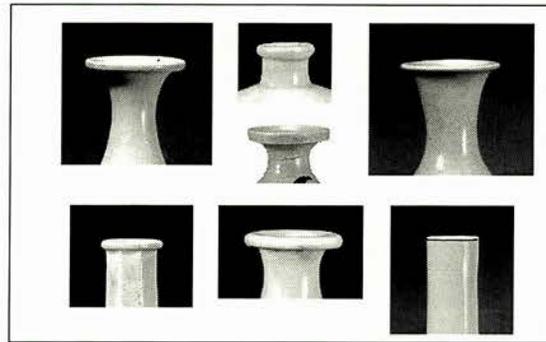


그림 9

3. 결 론

지금까지 청자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방법을 디자인의 경영적 측면과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디자인의 과정에 있어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부문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품 개발이 개인의 미적 감각과 조형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실효성이 있는 즉,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선 과정 간에 합리적인 조율과 전문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강진군의 대표 브랜드 상품의 개발을 추진할 경우 더욱 주지해야 할 점을 피력하였다.

조형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개발은 특히 색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위해 재료의 물성과 두께의 변화를 활용한 디자인 관점을 제안하였다.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자의 구성 요소 대한 새로운 해석과 변용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이 실제 제작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강진 청자만의 원천기술이 확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강진 도자산업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해저유적 출토 강진 청자의 현황과 성격

한 성 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목 차

1. 머리말
2. 해저유적 출토 강진 청자
 - 1) 태안 죽도 해저유적
 - 2) 태안 마도 1호선 해저유적
 - 3)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 4) 태안반도 해저유적
 - 5)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3. 맺음말

1. 머 리 말

한국에서 해저유적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 조사는 1976~1985년 실시된 신안 방축리(신안선) 해저유적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고선박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해저유적은 절대 다수가 고려시대이며 출토 유물은 도자기가 대부분으로 고려청자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자기가 지닌 재질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고려시대 漕運을 이용한

연안항로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도자는 많은 양이 함께 출토되기 때문에 기종과 기형, 문양, 燔法, 유약, 태토 등 제작기법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대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지와 운송로를 밝혀 유통체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식생활의 변화상을 유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해저에 매장된 도자기들은 수중에서 오랜 기간 매몰되었으나 고화도로 변조된 재질적 특성으로 인해 조형성과 품질 등이 거의 변화되지 않아 육상에서 출토되는 도자기보다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가마터나 퇴적층 등에서 출토되는 도자들은 변조과정에 폐기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출 수 없지만, 해저에서 인양되는 도자기들은 완성품으로 운반과정 중에 선박이 난파되거나 좌초되어 매몰된 것으로 기형과 문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 해저유적 출토 도자기들은 한정된 시기에 대량으로 생산된 유물들로 장식의장과 제작기법, 기종과 기형의 조합관계, 편년연구 등 도자사 연구에 더없이 중요한 자료이다. 이처럼 해저에서 다량의 청자가 조사되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도자의 유통이 연안항로를 이용한 해로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운송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청자가 발견된 해역의 대부분이 고려시대 조운로에 위치하고 있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해저유적은 선박과 함께 도자의 포장방법과 선적상태, 선상 생활용품 등이 잘 남아 있어 도자사와 생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려청자는 청자가 제작되던 그 시기의 가장 고품격의 청자들로 행선지가 고려의 수도였던 開京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청자의 조형성을 비롯하여 생산과 운반, 소비 등 유통구조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글은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강진 청자의 현황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까지 조사된 해저유적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해저유적 출토 강진 청자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저에서 출토되어 신고된 유물의 건수는 고려시대가 50% 정도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청자의 수량이 가장 많아 고려시대 연근해 해로를 통한 도자 운반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 이들 유적 가운데 발굴 조사가 실시된 곳은 신안 방축리와 완도 어두리, 태안반도, 군산 비안도, 군산 십이동파도, 보령 원산도, 군산 야미도, 태안 죽도(대섬), 태안 마도,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등이다(표 1). 이들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부분은 고려청자로 한국 도자사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자료적 가치는 무궁하다고 하 수 있다. 강진에서 생산되어 해로를 통해 운송되는 과정에서 해저에 매몰된 청자는 태안반도와 보령 원산도, 무안 도리포, 태안 죽도, 태안 마도 등에서 조사가 실시되어 고려와 강진 청자의 연구가 진일보하는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태안 죽도와 마도에서 출토된 청자는 비교적 정확한 편년과 생산지 등을 알려 줄 수 있는 목간과 죽찰이 함께 출토되어 유물의 제작시기뿐만 아니라 생산 구조와 유통 과정, 소비 성격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한편 이들 청자는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 유물들로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술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 한정훈, 2011 「12·13세기 전라도 沿海船의 해운활동」 『고려시대 해상활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중세사학회.

표 1. 해저유적 발굴 조사 현황

| 연 번 | 발굴 연도 | 유 적 명 | 발굴 기관 | 조사 성과 |
|--------|---------------|--------------------------------------|------------------|--|
| 1 | 1976~ 1984 | 신안 방축리 신안선 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 문화재청 해군 |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2,000여점 |
| 2 | 1980~ 1996 |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제주도 서귀포시 한경면 신창리) |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
| 3 | 1981~ 1987 | 보령 태안반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태안반도 근해) | 문화재청 해군 | 고려청자 40여점, 14~17세기 조선백자 등 |
| 4 | 1983~ 1984 | 완도 어두리 완도선 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 문화재청 |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
| 5 | 1991~ 1992 | 진도 벽파리 진도선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중국 13~14세기 통나무배 1척 |
| 6 | 1995~ 1996 |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 | 14세기 고려청자 638점 |
| 7 | 1995 | 목포 달리도선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
| 8 | 2002~ 2003 |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 |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
| 9 | 2003~ 2004 | 군산 십이동파도선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
| 10 | 2004~ 2005 |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3세기 전반 청자향로 편 등 |
| 11 | 2005 | 신안 안좌도선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4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4점 |
| 12 | 2006~ 2009 | 군산시 아미도 수중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아미도리)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2세기 고려청자 4,547점 |
| 13 | 2006 | 안산시 대부도선 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사죽해안)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2~13세기 고려 선박 편 |
| 14 | 2007~ 2008 | 태안 대섬 태안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단)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4,887점 |
| 15 | 2008~ 2010 | 태안 마도 1호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13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1,435점 |
| 16 | 2009~ 2010 | 태안 마도 2호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13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
| 17 | 2010 | 태안 원안해역 발굴 (충남 태안군 원안해수욕장 인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청자 등 |
| 계 | 총20회 | | | 선박 5척, 유물 42,083점 |

수중문화재 발굴 위치도

- ◆ 기간 : 1971~2010년
- ◆ 신고 : 총 238건
- ◆ 발굴 : 총 15건

| 연번 | 발굴명 |
|----|----------------|
| 1 | 신안 방죽리 수중발굴 |
| 2 | 제주 신창리 수중발굴 |
| 3 | 태안반도 수중발굴 |
| 4 | 완도 어두리 수중발굴 |
| 5 |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 |
| 6 | 목포 달리도 고선박 발굴 |
| 7 | 무안 도리포 수중발굴 |
| 8 | 군산 비안도 수중발굴 |
| 9 | 군산 심이동파도 수중발굴 |
| 10 | 신안 안좌도 고선박 발굴 |
| 11 | 보령 원좌도 수중발굴 |
| 12 | 군산 아미도 수중발굴 |
| 13 | 안산 대부도 고선박 발굴 |
| 14 | 태안 대섬 수중발굴 |
| 15 | 태안 마도 수중발굴 |



1) 泰安 竹島 海底遺蹟²⁾

태안 죽도(대섬) 해저유적은 동쪽에 안면도가 있으며, 서쪽은 예로부터 4대 難行梁으로 불리는 관장목(關丈項; 賈誼島와 馬島 사이)과 인접하여 있다. 가까운 항구는 북서쪽에 있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과 신진도항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생산과 유통 과정을 알 수 있는 목간이 함께 출토되어 죽도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청자가 耽津(강진)의 大口所에서 생산되어 在地勢力의 책임으로 선적되었으며, 중심 소비자는 개경에 거주하는 유력자들과 관련되었음이 밝혀져 청

- 2) 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8 『고려청자 보물선 태안, 강진, 그리고 ...』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태안 대섬 수중발굴 조사보고서』
 ③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고려청자 보물선과 강진』
 ④ 최명지, 2009 『태안 대섬 해저 출토 고려청자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자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죽도 해저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는 23,000여 점으로 강진에서 생산되어 개경으로 이동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침몰한 배에 선적되었던 유물들이다. 이들 청자는 고려 중기의 부족한 자료를 메워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로 그동안 널리 알려진 강진 용운리 10호 가마터 발굴조사 출토품보다 더 확실하게 중기청자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자료들이다. 즉, 가마터 출토품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고려 중기청자의 전개 양상을 유추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죽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대부분 회백색의 내화토 비짐을 받쳐 만들었으며, 문양은 압출양각과 음각, 철화, 퇴화 등으로 시문하였다. 문양은 비교적 다양하게 확인되며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도 있다. 또한 문양 가운데는 고려적인 요소와 중국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시문된 예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양각으로 시문한 문양은 어떤 시문기법보다 중국 자기의 새로운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각 문양에 보이는 독특한 꽃 모양은 중심 문양을 이루는 모란과 국화의 변형으로 생각되며, 이처럼 여러 모습으로 변형된 꽃의 형태는 고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작은 호에서 확인되는 도기적인 요소는 고려 내적인 요인도 반영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사진 1. 태안 죽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

죽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국과의 영향 관계가 강하게 확인되며, 중기 청자의 대표적 유형인 압출양각 모란절지문 대접과 접시, 연판문잔, 뇌문잔, 팽이형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은 강진 유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이 같은 시기의 제작 기법과 문양을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 현재까지 미흡한 고려 중기청자의 성격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수량의 청자가 선적되어 있고 세부 표현에서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강진의 여러 가마에서 함께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유물의 기형과 문양을 지표 조사품과 비교하였을 때 강진 용운리를 중심으로 사당리 등의 가마에서 생산하여 선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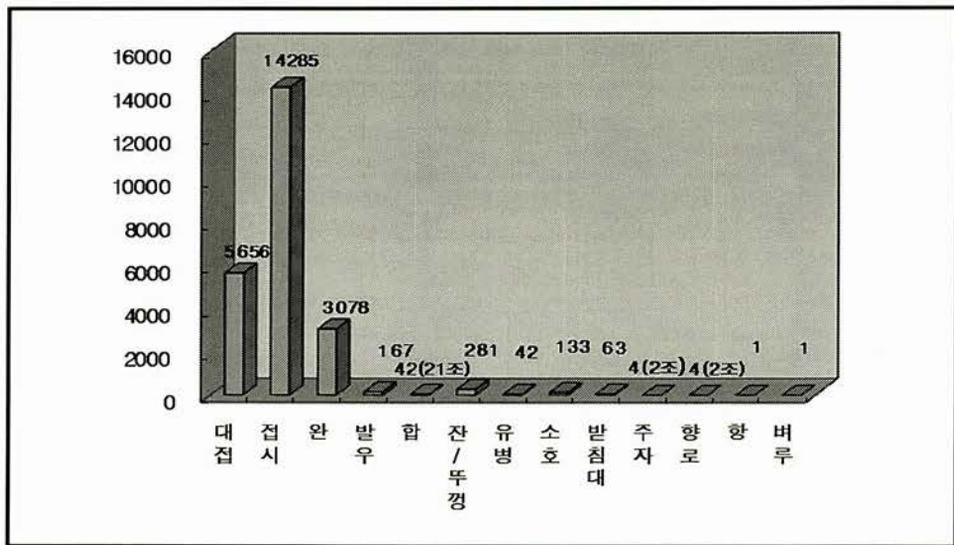


표 2. 대안 죽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 현황

- 3) ① 尹龍二, 1989 「康津郡의 陶窯址」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② 崔淳雨, 1982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③ 海剛陶磁美術館, 1992 『康津의 靑磁窯址』

죽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목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성격보다 崔大卿 등이 수취인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적인 물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적되었을 수도 있으나 좀더 확대하여 유추한다면 이들을 경유하여 강진 청자가 상품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즉, 도자의 유통과 상업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 중기 강진에서 직접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 泰安 馬島 1號船 海底遺蹟⁴⁾

태안 마도는 원래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에 부속된 섬이었으나 현재 육지와 連陸되어 있다. 마도 앞바다 안흥량 일대는 서해로 돌출되어 있는 지형 특성상 파도가 거세고 안개가 심해 통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해난사고가 빈번하였다. 마도 1호선은 함께 출토된 목간과 죽찰에 의해 무신정권이 안정화되던 1207(희종 3)~1208년 전라도의 遂寧縣(현재 장흥군 장흥읍)과 安老縣(현재 영암군 금정면), 竹山縣(현재 해남군 마산면), 會津縣(현재 나주시 다시면) 등에서 화물을 싣고 개경으로 향하던 중 1208년 봄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선박이다. 수신인은 別將 權克平과 同正 宋壽梧, 大將軍 金純永 등으로 관료들의 이름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발신인은 지방 향리(長)로 ‘宋椿’ 등의 이름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이 책임지고 선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발굴된 목간과 죽찰에는 丁卯(1207년) 10월, 12월 28일과 戊辰(1208년) 정월, 2월 19일 등의 간지와 날짜가 적혀 있어 화물의 선적 시기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도 1호선은 무진년 2월 19일 이후 출항

4) 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 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②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800년 전의 타임캡슐-태안 마도 수중문화재 발굴성과-』

③ 李鍾玟, 2011 「泰安 馬島 海底 出土品으로 본 高麗 中期青磁의 編年問題」 『梨花史學研究』 42, 梨花史學研究所.

한 것으로 보인다. 목간과 죽찰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대장군 김순영과 별장 권극평은⁵⁾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인물로 이를 통해 마도 1호선이 1208년 출항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적 물품과 포장 단위, 발신지와 수신자 등이 기록되어 있어 오늘날의 택배 送狀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3. 태안 마도 1호선 출토 청자 현황

| 기종 | 발 | 접시 | 완 | 잔 | 잔 뚜껑 | 병 | 화분 | 항 | 반 | 정병 | 주자 | 주자 뚜껑 | 승반 | 기대 | 계 |
|----|------|------|-----|------|---------|-----|-----|-----|-----|-----|-----|----------|-----|-----|-----|
| 수량 | 133 | 115 | 1 | 55 | 12 | 3 | 6 | 2 | 1 | 1 | 1 | 1 | 1 | 2 | 334 |
| % | 39.8 | 34.4 | 0.3 | 16.5 | 3.6 | 0.9 | 1.8 | 0.6 | 0.3 | 0.3 | 0.3 | 0.3 | 0.3 | 0.6 | 100 |

마도 1호선이 항해하였던 고려 중기는 청자 발달사에서 매우 역동적인 시기로 전성기로 대변되고 있다. 초기의 茶盞 중심에서 벗어나 기종이 다양해지며, 문양의 소재와 표현, 시문 기법 등도 풍부해지면서 품질과 수량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자료가 많이 축적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마도 1호선 출토품은 성격이 미흡한 13세기 초반의 도자 양상과 성격을 밝힐 수 중요한 자료이다. 마도 1호선에서 출토된 청자는 모두 334점으로 기종은 대접과, 접시, 완, 잔, 병, 화분, 항, 반, 정병, 주자, 승반, 기대 등인데 대접과 접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 3). 이는 생산 시설인 가마터와 소비지인 생활유적에서도 확인되는 통계로 도자가 일상적인 반상 용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그리고 품질은 상감모란문주자와 양각연판문접시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성형과 정형, 문양, 유약, 번법 등에서 양질 청자와는 구별되어 우수한 품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태토는

5) 문경호, 2011 『泰安 馬島 1號船을 통해 본 高麗의 漕運船』 『고려시대 해상활동의 양상과 성격』 한국중세사학회, 43쪽.

모래가 많으며 磁化 정도가 상이하고 받침도 일부 규석이 있으나 대부분 모래가 섞인 거친 내화토 비짐을 받쳐 번조하였다. 또한 찌그러지거나 기포가 부풀어 있는 것 등도 섞여 있어 그 품질이 높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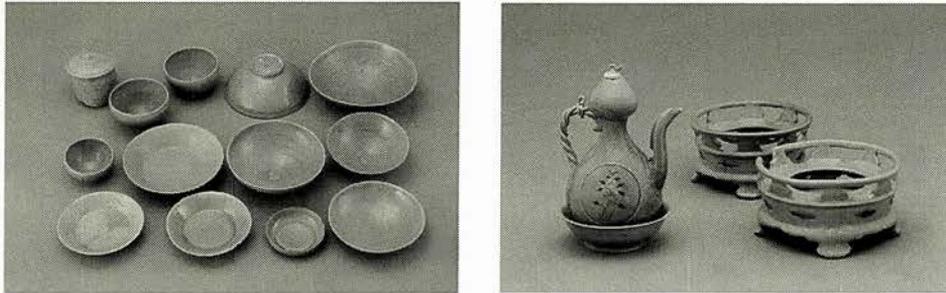


사진 2. 태안 마도 1호선 출토 청자

마도 1호선은 현재의 장흥과 해남, 영암, 나주 등을 경유하여 개경을 향하던 중 태안 마도 앞바다에 침몰하면서 13세기 초반 청자 제작과 유통 과정 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선적되었던 청자는 이 지역에서 생산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청자 가운데 철화 등 일부 해남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강진에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강진 생산품은 기형과 문양, 시문기법, 번법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강진 용운리 10호 Ⅱ층 ‘나’ ‘다’ 유형과 유사하여 이들의 제작 시기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도 1호선에서는 벼와 콩, 보리, 메주, 소금, 죽제품, 젓갈, 꿀, 참기름 등 다양한 물품 목록이 적혀 있는 목간과 죽찰은 있으나 도자와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며 도자의 수량도 많지 않아 이 선박이 도자 수송이 주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3) 保寧 元山島 海底遺蹟⁶⁾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은 忠淸南道 保寧市 鰲川面 元山島里에 위치한다. 이 해역은 충남 泰安郡 安眠島와 원산도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원산도 社倉마을 앞 해안에 위치하며, 썰물 때는 해면이 노출되는 지형으로 굴 양식을 하는 곳이다. 원산도 해역에 대한 학술조사는 2004년 10월 문화재청에 청자파편이 신고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4년 11월 국립해양유물전시관(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추가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11월 추가 조사가 실시되었다.

출토품은 대부분 전성기 翡色靑瓷 파편으로 일상 생활용기인 대접과 접시, 잔을 비롯하여 특수용기인 향로와 매병, 의자, 베개 등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 매우 특징적이다. 일상 생활용기의 경우 대접은 陽印刻寶相唐草文大楪과 陽印刻雲鶴文大楪, 陰刻鸚鵡文大楪, 半陽刻蓮瓣文大楪 등이 있으며, 접시는 陽印刻雙魚文楪匙과 陽印刻寶相唐草文楪匙, 陽印刻牡丹文楪匙 등이 있다. 이외에 陰刻牡丹文盞을 비롯하여 잔 받침과 합, 병, 호, 항 등이 있다. 의례용 또는 장엄용으로 사용되었던 특수용기의 경우 향로는 三足象形香爐와 饗養文方形香爐, 饗養文圓形香爐 등 다양한 유형이 출토되었다. 특히 상형향로에서는 大阪市 立東洋陶磁美術館 소장의 원앙형향로와 유사한 조형이 있으며, 도철문 방형향로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향로(보물 제 1026호)와 비슷하다. 연적은 간송미술관 소장 청자오리형연적(국보 제74호)과 조형성이 유사한 예가 있다. 매병은 陰刻蓮花折枝文이 가장 많으며 象嵌雲鶴文梅瓶과 象嵌梅竹柳蘆水禽文梅瓶 등이 일부 확인된다. 음각연화절지문매병은 문양구성이 이현 소장품(국보 제254호)과

- 6) ①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7 『보령 원산도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② 백은경, 2010 「원산도 인양 청자향로 연구」 『해양문화재』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③ 한성욱, 2010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의 연구」 『과기고고연구』 16, 아주대학교박물관.
④ 한정화, 2010 「보령 원산도 출토품의 문양을 통해 본 편년과 제작지」 『해양문화재』 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매우 비슷하다. 또한 靑瓷象嵌蓮瓣文瓜形瓶, 陰刻蓮花折枝文瓜形注子, 象嵌牡丹文四耳壺, 透刻墩, 透刻器臺, 童子形硯滴, 藥棒, 陰刻蓮花折枝文枕 등 매우 다양한 기종과 문양이 확인된다. 이들은 대부분 최상의 양질청자로 변법은 일부 거친 내화토 받침을 제외하고 규석 받침의 匣燻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상감청자는 매병과 잔 등에서 소량 확인되며 무문과 음양각, 상형 등의 순청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전성기 청자의 출토 양상과 비슷하다.

이들 출토품의 생산시기는 靑瓷陰刻蓮瓣文樑匙의 굽 안바닥에 음각 「○」문이 새겨져 있어 1230년대로 판단된다. 음각「○」문은 1232년 하한의 坡州 惠蔭院址와 1237년 축조의 江華 熙宗 碩陵, 1226~1250년 층위를 갖는 日本 鎌倉의 若宮大路周邊遺蹟에서도出土되고 있다. 또한 이들 음각「○」문청자는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8·23·27窯址 등 한정된 가마터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제작시기와 제작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식적 유물이다. 따라서 이들은 1230년대에 강진에서 제작되어 開京 또는 江華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 현황

| 기종 | 대접 | 접시 | 완 | 잔 | 잔 받침 | 병 | 호 | 주자 | 합 | 항로 | 연적 | 의자 | 베개 | 기대 | 棒 | 합계 |
|----|-----|-----|-----|----|------|----|----|-----|----|----|-----|----|----|-----|-----|-------|
| 수량 | 553 | 714 | 193 | 66 | 51 | 65 | 13 | 4 | 18 | 85 | 2 | 21 | 47 | 4 | 4 | 1,840 |
| % | 30 | 39 | 10 | 4 | 3 | 4 | 1 | 0.2 | 1 | 5 | 0.1 | 1 | 3 | 0.2 | 0.2 | 100 |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는 全盛期 翡色靑瓷의 제작 시기와 용도, 조합상 등을 알려 줄 수 있는 특징적 유물로 도자사뿐만 아니라 경제사와 생활사 등 고려사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청자는 釉胎와 器形, 文樣, 燻法 등이 매우 우수한 최상의 양질청자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왕실 등 최상류층을 위해 생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문화재급 청자들과 품질이 유사하여 상

호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 특히 다양한 유물이 일괄 출토되어 기존 전성기 비색청자들에 대한 심층 연구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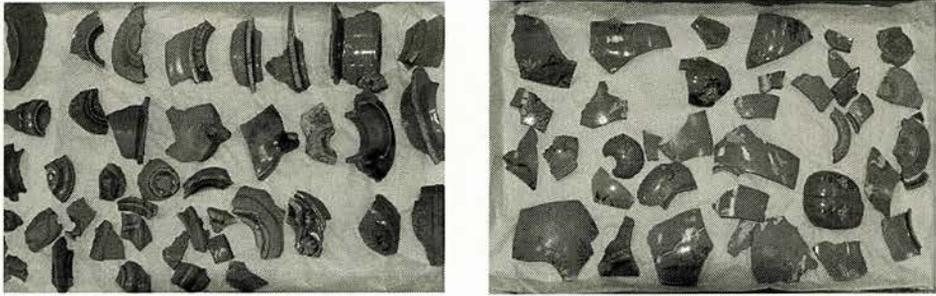


사진 3. 보령 원산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

4) 泰安半島 海底遺蹟

보령 태안반도 해저유적은 「己巳」銘象嵌靑瓷가 다량 출토되어 유명한 유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굴조사였지만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기사」명과 공반된 유물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⁷⁾ 태안반도 해저유적의 발굴조사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이 보령 納大只島와 長古島를 비롯하여 인근의 馬島 新津島里 竹島 등의 근해에서 실시하였다. 유물은 고려청자 40여점과 함께 조선백자 등이 인양되었다. 고려청자는 초기의 해무리굽완 1점과 청자상감투각기대 1점이 있으나 대부분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간지명 상감청자 가운데 가장 빠른 「기사」명상감청자이다. 또한 청자상감투각기대도 「기사」명상감청자와 동일한 시기의 제품으로 「기사」명상감청자와 함께 선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들 출토품은 현재까지 「기사」명상감청자가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117番地一帶 窯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청자는 사당리에서 생산되어 康津灣 일대 포구에서 長興倉의 책임하에 선적되어 조운로를

7) 鄭良謨, 1991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219쪽.

따라 開京으로 운송하던 도중 태안반도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산지(강진 사당리)와 己巳年(1329년)이라는 정확한 생산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로 도자사뿐만 아니라 향해사 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사진 4. 태안반도 해저유적 출토 청자

한편 태안반도 인근해역인 唐津과 瑞山, 保寧, 舒川 등 여러 해역에서도 고려청자가 발견되고 있어 이 일대에서 많은 조운선이 침몰 또는 조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保寧 大川海역에서는 1983년과 1984년 청자대접과 청자연관문대접 등 5점이 발견되었으며, 1985년에는 13점의 상감청자(靑瓷象嵌柳蘆水禽文「己巳」大椀 1점, 靑瓷象嵌柳蘆文「己巳」銘椀匙 1점, 靑瓷象嵌「己巳」銘八角椀匙 2점, 靑瓷象嵌菊花文「己巳」銘椀匙 2점, 靑瓷象嵌菊花文大椀 1점, 靑瓷象嵌菊花文盞 1점 등)가 발견되었다. 保寧市 鰲川面 佛母島·插矢島·石臺島·龍島·元山島·孝子島 등 해역에서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청자대접과 청자접시, 청자잔받침 등 30여점의 청자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保寧市 熊川邑 石臺島·黃竹島 등 해역에서도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청자대접과 청자접시 등 15점의 청자가 발견되었다.

한편 인근의 瑞山海역에서는 1983년 新津島里 馬島 앞 해저에서 청자대접 50여점이 신고되었으며, 1976년과 1977년, 1987년에 청자

광구병 등 4점이 신고되었다. 西面 마양리 앞 해저에서는 청자대접 등 8점이 발견되었다. 최근에는 태안 마도와 죽도 인근에서 고려시대 선박과 청자가 다량 인양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충남 서해안에서는 30여점의 청자가 발견된 예가 있다. 이처럼 많은 해저유물이 보령을 중심으로 태안반도를 포함한 인근해역에서 출토되는 것은 이 지역이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하는 경유지이며, 또한 매우 위험한 항로로 선박의 침몰과 조난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 해역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고려 도자사와 선박사, 생활사, 해로사 등을 연구하는데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⁸⁾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의 발굴은 1995~1996년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해군 충무공유물발굴단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적의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해역으로 유물 매장처는 무안군과 영광군, 함평군의 경계해역으로 함평만에 속하며 앞에는 칠산해역이 펼쳐져 있다. 유물은 견고한 개펄층으로 형성된 해저면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청자를 선적하였던 선박은 발견되지 않았다.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에서는 모두 638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생활용기인 대접(561점)과 접시(72점)가 확인되며 일부 발(1점)과 잔(2점), 잔받침(2점)이 있으나 병과 호 등 특수(의례) 기종은 출토되지 않아 14세기 이후 실용품 중심의 도자산업을 엿볼 수 있다. 대접은 내저면의 형태에 따라 내저원각식과 내저곡면식으로 나누어지며, 내저곡면식은 높이와 입지름의 크기에 따라 대접과 중대접으로 분류된다. 접시는 측면외반 I 형과 측면외반 II 형, 내저곡면 I 형, 내저곡면 II 형, 측면사선형, 팔각접시, 평저접시, 전접시 등으로 세분된다. 이

8) ①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3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

② 韓盛旭·金愛敬, 2003 『務安 道里浦 出土 象嵌靑磁의 研究』 『務安 道里浦 海底遺蹟』 國立海洋遺物展示館.

들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의 기형은 「己巳」銘象嵌靑瓷 이후 지속되는 대형화된 둔중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어 후기청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5.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출토 청자 현황

| 번호 | 기종 | 문양 | 수량 |
|----|-----|---|-----|
| 1 | 발 | 象嵌蓮唐草鳳凰文 | 1 |
| 2 | 대접 | 象嵌雲文, 象嵌雲鳳文, 象嵌雲鶴文, 象嵌菊花文, 象嵌花卉折枝文, 象嵌蓮花文, 象嵌蓮唐草文, 象嵌蓮池水禽文, 象嵌蓮池문, 象嵌柳蘆水禽文, 象嵌柳蘆文, 象嵌蘆文, 象嵌柳蓮水禽文, 象嵌柳蓮文, 象嵌線文 等 | 561 |
| 3 | 접시 | 象嵌雲文, 象嵌菊花文, 象嵌柳蘆水禽文, 象嵌蘆池水禽文, 象嵌蓮池水禽文, 象嵌如意頭文, 象嵌蓮瓣文, 象嵌蓮花文, 象嵌波濤文, 象嵌線文 等 | 72 |
| 4 | 잔 | 象嵌蘆文, 象嵌雲鶴文 | 2 |
| 5 | 잔받침 | 象嵌蓮瓣文, 象嵌雲文 | 2 |
| 합계 | | | 638 |

문양은 구름과 봉황, 국화, 모란, 연꽃, 갈대 등이 자유롭고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으나 대부분 말기청자의 특징인 인화기법의 간략화된 반복문양이 듬성듬성 거칠게 시문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접에 시문된 문양은 구름과 雲鳳, 운학, 국화, 蓮唐草, 연꽃, 柳蘆水禽, 花卉鳥蟲, 線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구름과 운봉이 가장 많이 시문되었다. 접시는 구름과 국화, 연꽃, 如意頭, 유노수금, 파도, 선 등으로 나뉘어진다. 발에 시문된 문양은 蓮唐草鳳凰이며, 잔에는 雲鶴과 갈대가 시문되었다. 잔받침에는 구름과 연꽃잎이 확인된다. 문양 가운데 대접과 발에 시문된 연당초는 14세기경부터 강진 사당리 가마에서 유행하였으며, 고려 말~조선 초에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⁹⁾

燔法은 모래를 받쳐 단독 번조한 것과 태토 비짐을 받쳐 포개구운

9) 강경숙, 2001 『한국 도자기의 연구』 시공사, 250~251쪽.

것으로 구별된다. 태토 비짐을 받친 경우 검은 태토를 이용한 것은 강진 사당리 10호 가마터 일대에서만 확인되는 특징적 받침으로 도리포 해저유적에서 인양된 청자가 강진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유약은 모두 어두운 색조를 띠는 다갈색조와 일부 산화가 이루어진 황갈색조가 있으며, 제대로 용융되지 않아 시유상태가 불량한 청자도 많다. 굽바닥의 유약은 시유 후 모두 부분적으로 닦아내고 있다.

이들 출토품은 기형과 유색, 문양, 받침 등을 검토하였을 때 고려후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干支銘 상감청자를 비롯한 靑磁象嵌柳蘆水禽文「至正十一年」銘大樑(1351년), 靑磁象嵌如意頭文「至正」銘樑匙(1341~1356년), 靑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大樑(1365~1374년), 原州 令傳寺址 普濟尊者舍利塔 出土 청자상감선문대접(1388년)¹¹⁾ 등 절대편년 자료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에¹²⁾ 시문된 연당초문과 도리포 출토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에 시문된 연당초문이 매우 비슷한데, 이들 문양은 紛靑象嵌蓮唐草文「恭安」銘大樑(1400~1420년)에 시문된 연당초문과도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절대년대 자료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해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가 「정릉」명상감청자 이후 즉, 14세기 말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는 고려청자의 쇠퇴과정뿐 아니라 분청자로의 이행과정을 밝힐 수 있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 주는 도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에 시문된 연당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당초문은 14세기경부터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에서 유행하여 고려말~조선초에 강진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양이다. 즉, 도리포 출토 청자상감연당초문대접에 시문된 연당초문은 청자상감연당초문「정릉」명대접(1365~1374년) 문양과 비슷하며, 분청상

10) 李鍾玟, 1992 「14世紀 高麗 象嵌靑磁의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5쪽.

11) ① 具一會, 1991 「高麗時代 靑磁象嵌大樑의 編年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圖面 76.

② 李鍾玟, 1992 「14世紀高麗象嵌靑磁의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31쪽.

12) 海剛陶磁美術館, 1991 『高麗時代 後期 干支銘 象嵌靑磁』 41쪽.

감연당초문「공안」명대접 문양과도 연결되고 있어 도리포 출토 상감청자가 고려말 상감청자에서 분청자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청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청자들은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공급과정에서 침몰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시기 청자의 질적쇠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도리포 해저유적 출토품은 그 기형과 문양, 번법 등 제작수법으로 보아 「정릉」(1365~1374년)명상감청자 이후 즉, 14세기 말기에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호 요지 일대에서 제작하여¹³⁾ 개경으로 운반 도중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5. 무안 도리포 해저유적 출토 청자

3. 맺음말

강진에서 생산되어 연안항로를 따라 운송하는 과정에 해저에 매몰된 청자는 현재까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초기청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말기청자의 예도 1곳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려 초기는 각지에서 청자가 생산되던 시기로 강진으로 청자 제작 기술의 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다. 특히, 개경을 비롯한 경기도 주변의 봉천 원산리와 용인 서리, 고양 원흥동, 양주 부곡리, 시흥

13) 海剛陶磁美術館, 1992 『康津의 靑磁窯址』

방산동, 여주 중암리 등의 가마에서 청자와 백자 등을 생산하고 있어 강진에서 개경까지 청자를 공급할 여력과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말기 청자의 해상 운반은 무안 도리포 유적 1곳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1350년 이후 왜구의 침입이 극심하여 해상 운송이 힘들어 육로로 도자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남해안에 있던 大口所(강진) 청자 장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각지에서 청자를 만들고 있음도 도자 운송의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었다.

해저유적에서 출토되는 청자도 일상 식생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대접과 접시, 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청자를 만들었던 가마터와 이를 사용하였던 생활 유적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생산과 유통, 소비 등 청자와 관련된 모든 유적에서 일상 반상용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이들 반상기를 중심으로 도자 문화(산업)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동안 해저유적은 왕실과 관아 등 국가 소용의 공납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최근 태안 죽도와 마도 등의 조사 성과에 힘입어 상업 도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즉, 태안반도와 보령 원산도, 무안 도리포 유적의 유물은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貢納(貢物)의 성격이 강하다면 죽도와 마도 출토품은 함께 출토된 목간과 죽찰, 유물의 품질로 보아 상품으로 운반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마도 1호선처럼 청자보다는 곡물이 운송품의 중심을 이루는 유적도 확인되고 있어 연구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해저유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지만 과제 또한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태안 죽도와 마도에서 출토된 목간과 죽찰을

14) ① 鄭道傳, 『三峰集』 13卷, 朝鮮經國典 上, 賦典, 漕運條; … 國家三邊濱海 內有大江 漕運由之 民力可省 自倭寇作耗 沿海州郡 舍水而陸 崖險谷隘 秋潦冬雪 人夫疲頓 牛馬顛踏 民甚苦之 殿下即位 命有司修戰艦 增戍卒 水攻陸守 倭寇進不得掠 退無所獲 於是遠遁 而海運通 陸輸州郡 遠者不過四五百里而達于江 民力省而國用裕 然吏不得人 措置之方 小失其宜 則害隨以生 不可不察也.

② 『高麗史』 118卷, 列傳 31, 趙浚條; 司饗每歲 遣人於諸道 監造內用瓷器 一年爲次 憑公營私 侵漁萬端 而一道 馱載至八九十牛 所過騷然 及至京都 進獻者 皆百分之一餘 皆私之弊莫甚焉.

통해 당시 청자를 생산하고 선적하였던 耽津縣과 大口所의 실체를 밝히는데 주력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문헌 부족으로 생산지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많았는데 목간의 존재는 지방의 청자 생산 체제를 비롯하여 지방 행정 구조와 체제 등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제13회 고려청자 학술 세미나

강진 청자의 미래 지향점

- 일시 : 2011년 8월 5일(금) 14:00
- 장소 : 강진청자박물관 시청각실
- 주최 :  강진청자박물관